

# 1960~70년대 서울시 국민학교 건축 표준설계도에 관한 연구

이정우<sup>1\*</sup>

## A Study on the Standard Drawings of Seoul Elementary School Architecture in 1960~70s

Jung-Woo Lee<sup>1\*</sup>

**요약** 본 연구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국내 초등교육시설의 건축적 특성을 규정했던 표준설계도들 중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1964년과 1975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국민학교 건축 표준설계도를 대상으로 각 표준도의 구성, 평면 및 입면, 부대시설 계획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표준도가 가지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두 표준도 모두 장방형 교실과 편복도형 블록플랜, 일체의 의장이 배제된 철저히 기능적인 외관 등 1980년대까지의 전형적인 국내 학교건축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중복도형 블록플랜 그리고 지하교실, 교사동내에 계획된 적층형의 재래식 화장실 등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계획특성들과 개구부 및 외벽구성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들에서의 변화도 두 표준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Until 1980s, Korean elementary school architecture has been stereotyped by standard drawings. But there have been very few researches focused on this subject, especially regional one. As an attempt to improve these conditions, this study reviewed standard drawings of elementary school architecture by Education Board of Seoul in 1964 and 1975. Both standard drawings were reviewed through items such as components making a set of standard drawings, floor plan, elevation design and subsidiary facilities. They have rectangular unit classrooms, single-corridor block plan and plain exterior having no symbolic images,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Korean school architecture until 1980s. On the other hand, they reveal the unknown characteristics such as double-corridor block plan, classrooms in basement, toilets of conventional type placed on every floor and changes in details of openings and exterior wall.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Architecture, Standard Drawing

### 1. 서론

국내 초등교육 시설은 해방이후 오랫동안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립되어 왔다. 따라서 해방 이후의 표준설계도들은 국내 학교건축의 기본적인 특성을 모두 함축하고 있으며 그만큼 학교 계획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이는 표준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획일적 특성이나 단순한 구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선호되는 연구주제가 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표준설계도가 정식으로 간행되는 자료가 아니었고 해당 표준도 제정까지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교육시설 담당 부서의 내부 문건 형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들이 이들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국내 학교건축을 상징했던 표준설계도에 의한 표준화교사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면서 이와 함께 표준설계도들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채 사라져 가고 있다. 이 점은 국내 학교건축사에서 공교육시설 관련 부분이 공백에 가까운 상태로 남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해방이후 여러 차례 표준도들이 만들어졌지만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1964년과 1975년 제작했던 국민학교 표준 설계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960, 70년대는 교실난으로 표현될 정도로 교실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sup>1</sup>배재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접수일 08년 11월 06일

수정일 08년 12월 08년

\*교신저자:이정우(yvan1@pcu.ac.kr)

계재확정일 08년 12월 16일

교육시설의 질보다는 양의 문제에 치중했던 시기였으며, 서울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났던 곳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1960, 70년대 서울시 표준도는 당시 국내 학교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학교건축 계획분야가 대응했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 문교부에서 만들었던 표준도에 비해 서울시 표준도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도 본 연구가 서울시 표준도에 주목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964년과 1975년 서울시에서 제작했던 표준도들의 특성을 각 표준도의 구성과 평면 및 입면 구성방식, 기타 부대시설에서의 특징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2. 해방이후의 표준설계도

해방이후 당시 문교부나 지방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학교시설의 표준설계도가 작성되었다는 기록은 여러 문헌들에 나타난다. 가장 빠른 것으로는 1950년대 초반 전후 복구를 위해 벌였던 생벽돌 임시교사 축성운동에서 문교부가 관련 도면과 시방서를 교부하고 이를 학도호국단을 대상으로 지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란으로 파괴된 교사의 복구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임시사업의 일환이므로 교육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문교부의 방침을 담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의무교육시설 확충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1960년대에 들어 표준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60년대 중반 각 지역 교육위원회별로 간행되었던 홍보물들 중 교육시설에 관한 부분에는 거의 동일한 문구로 ‘학생들의 보건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표준도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등장한다.

(1961년: 인용자) 5.16당시의 의무교육시설은 대부분이 목조 건물에다가 건물의 형태가 각양각색이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지양하기 위하여 본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설표준도를 작성, 축부(軸部)는 연와조에 지붕에는 내화내온재인 스프트로 시공하여 아동보건과 공사비 절감에 치중하였다.[5, pp193~194]

아동보건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설표준도를 작성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공사의 계획 실천에 힘썼다.[7, p161]

하지만 위의 기록들은 위와 같은 간단한 언급 외에 구체적인 사실 진술이 누락되어 있어 모두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표1은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제작되었던 교육시설 관련 표준설계도 중 본 연구를 통해 그 원본을 확인했거나, 존재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표준화관련 도서목록이다.

[표 1] 해방이후 초등교육시설 표준설계도

년대	연도	발행처	자료명
1960년대	1962	문교부	학교 표준 설계도
	1964	서울시	국민학교 표준건축 시설 설계도
1970년대	1975	서울시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1집: 교사·체육관편, 2집: 부대시설편, 3집: 책상 및 걸상)
	1980	문교부	학교교사 표준설계도
1980년대	1983	문교부	자연형 태양열 학교교사 설계도
	1983	문교부	조립식 학교교사 표준설계도
	1985	문교부	화장실 표준설계도

## 3. 1964년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표준건축 시설 연구 보고서」

### 3.1 구성

1960년대 초 『조선일보』에는 위 보고서를 작성했던 표준 건축시설 연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학교 표준 건축시설 연구위’ 태동

- 눈대중식을 지양, 서울시 교육효과 등 최대한 보장

서울시는 학교 표준 건축시설 연구위원회의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건축시설물이 일정한 규격이나 교육적 또는 학교보건을 고려하지 않고 눈대중만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6, 3면]

위 기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서울시는 1962년 8월 30일 학교 표준 건축시설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2년 후인 1964년 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보고서는 B4 규격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보고서 부분과 설계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 보고서 부분은 8페이지

1) 연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회 회원 등 사계 권위자 50명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육국장이 의장이 되며, 6개 전문 분과위원회와 위원장으로써 구성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종합설계, 편제 및 규정, 설비, 구조 및 건설, 척도 및 의장, 관리 및 보안 등의 분과위원회이다. [6]

지 분량 정도로 간략하게 국민학교 건축에 관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설계도 부분은 32페이지 분량의 도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복도 건물, 중앙복도 건물, 부대건물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편복도 건물과 중앙복도 건물이 교사동 부분에 해당하며 부대건물에는 정문, 관리동, 창고, 음수대, 변소 등의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 3.2 특성

#### 3.2.1 평면구성

1964년 서울시 표준도에서 교사동 유형은 편복도형과 중앙 복도형(중복도형)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표2 참조) 각 유형별로 총 7가지의 평면형이 제시되어 있다. 편복도형에는 1자형 평면과 U자형 평면의 두 종류가, 중복도형<sup>2)</sup>에는 총 5종류의 평면형이 제시되어 있다. 중복도형이 평면형의 종류는 많지만 이는 학급수와 층수에 따른 구분일 뿐, 평면 구성상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sup>3)</sup>

하지만 중복도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64년 서울시 표준도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의 표준도들 중 중복도형 평면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이렇게 초등학교시설에서 중복도 형태를 배제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64년 서울시 표준도에는 중복도형 평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전체 평면형 7가지 중 5가지가 중복도형일 만큼 다수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중복도형 평면을 다수 적용했던 것은 최소 24학급에서 최대 37학급 정도의 대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 통풍 등의 조건에서는 불리하지만, 면적 효율 상 유리한 중복도 형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편복도형 평면에서도 교지면적의 활용상 유리하지 못한 일자형 교사동의 병렬 배치방식은 채택되어 있지 않고, 1자형과 U자형 평면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교실을 수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와는 달리 해방 이후 국내 교육계가 미국식 교육을 모델로 변화되었다는 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학교건축에서는 중복도형 평면이 많이 사용되었고, 미국원조 당국에서 교사 형식을 지정한

경우의 교사동 평면은 중복도형이었다. 이렇게 미국식 교육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일제강점기 동안 일종의 규범처럼 신봉되었던 편복도 형식에 대한 선호와 중복도에 대한 거부감이 일정 정도 불식되었기 때문으로도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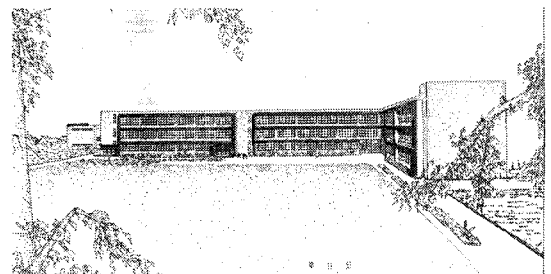
[표 2] 1964년 서울시 표준도에서의 교사 유형

유형	학교 규모	교실	복도	
편복도	1자형(3층)	36학급	9m×7.5m	2.3m
	U자형(층수불명)	불명		
중앙 복도	3층 건물	37, 34, 24학급	9m×7.5m	3.0m
	2층 건물	26, 24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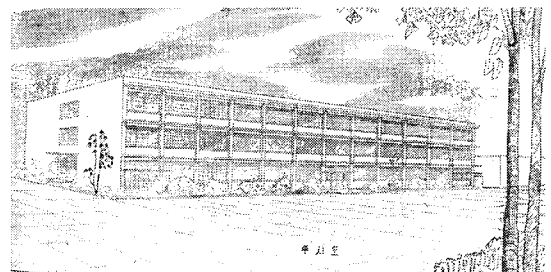
\* 다른 유형들과 달리 U자형 교사동은 배치도 1장만이 수록되어 있어 층수나 학교 규모를 알 수 없다.

#### 3.2.2 입면구성

1964년 표준도의 입면구성은 기둥과 보 등의 구조체 부분과 창 하부벽을 제외한 모든 외벽면을 유리창으로 구성하여 개구부를 최대한 크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채광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외벽측 보의 크기도 최소화하여 계획하고 있다. 외벽 구성방식은 벽과 루버부분을 모두 콘크리트로 일체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외벽에 단열구조는 없었다. (그림 1,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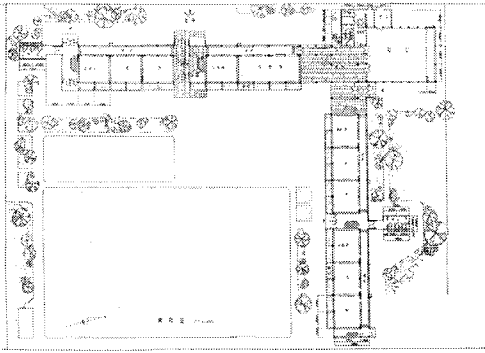
(a) 편복도형 1자 교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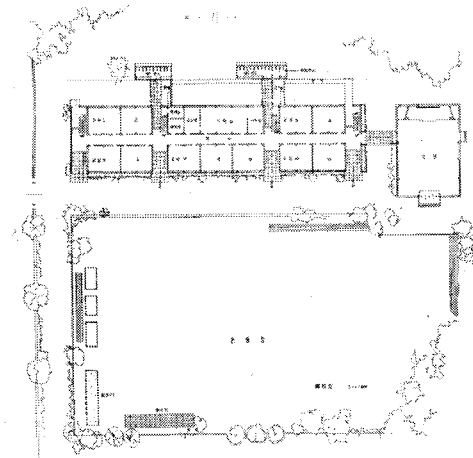
(b) 중복도형 교사동

[그림 1] 1964년 서울시 표준도(투시도, 출처[1])

2) 보고서에는 '중앙 복도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서술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중복도형으로 통일해서 사용  
 3) 중복도형 평면의 기준층만을 대상으로 평면형식을 구분 한다면 복도를 기준으로 계단실을 모두 한 방향에 배치한 경우와 양방향으로 나누어 배치한 경우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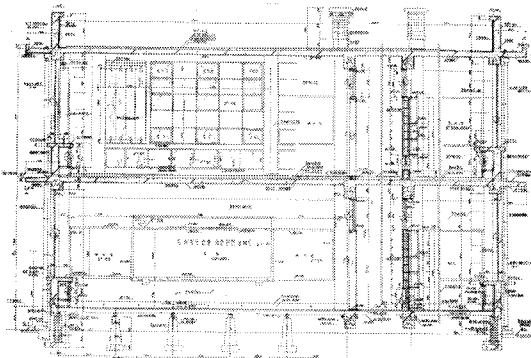


(a) 편복도형 7자 교사동



(b) 중복도형 교사동

[그림 2] 1964년 서울시 표준도(배치 및 1층 평면, 출처[1])



[그림 3] 1964년 서울시 표준도(규준 단면상세도, 출처[2])

편복도형 7자 교사동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 입면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표준화교사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교실의 입면을 별다른 고

려없이 무한히 반복시키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a 투시도의 운동장측 외관은 단위교실의 입면을 무한히 반복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설계자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실부분과 계단실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능이 외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도록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단실 부분의 개구부를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도된 디자인으로 보인다.

루버의 처리도 단위교실의 루버를 교실들이 반복되는 대로 입면에 반영했다기 보다는 교실부분을 한정하는 프레임으로 연속되게 처리하였다. 특히 화장실 부분까지도 교사동 외관과 통일시켜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별동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그 외관도 교사동 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7자형 유형에서는 별동으로 계획된 화장실도 교사동 부분과 통일감을 가지도록 계획하고 있다.(그림1-a 참조)

### 3.2.3 부대시설

64년도 표준도의 보고서에서는 특별교실로 과학실, 음악실, 집회실, 미술-공작실, 도서실 등을 규정하고 각각의 계획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면에서는 특정실의 명칭이 아닌 특별교실로 통칭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교실의 위치선정에도 특별한 원칙은 없어 보인다. 이는 특별교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표준도가 나왔던 1964년도는 1차 의무교육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였으므로 일반교실 부족분의 확보가 최대의 과업이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특별교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었고 이 점은 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특별교실의 이용도는 오늘날에 와서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교실의 부족은 특별교실을 보다 축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교실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의 문제인 것이며 보통교실의 부족수를 어떻게 보전(補填)하고 또 특별교실을 마련하느냐가 초점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1, p1]

보고서 상에는 강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총 7개의 평면형 중에서 5개의 사례에 강당이 계획되어 있다.4) 대부분이 교사동과 별동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7자형 평면에서처럼 로비를 공유하면서 교사동에 붙여서 계획된 경우도 있다.(그림2-a 참조) 하지만 어느 경우이던지 필요에 따라 강당이 계획되지 않아도 교사동 평면에

4) 24학급 규모 학교들에는 강당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는 무리가 없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다. 강당을 필수시설로 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강당을 계획하게 되지 못하더라도 전체 교사평면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계획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교사동 계획에서 필수시설로 고려되지 못한 것은 관리관계실도 사정이 비슷했다. 대부분의 교사동 평면에는 직원실이 계획되어 있지만 부대시설도 면 중에 교장실, 직원실, 양호실, 취사실, 숙직실로 구성된 관리동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다. 보고서 본문 중에도 '관리 행정실은 별도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p5]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본 교사동에는 교실들을 일차적으로 수용하고 이후 관리관계실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추가로 관리동을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관계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중복도형의 경우 관리관계실을 운동장 반대편에 계획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복도형의 5가지 평면 중 3개 사례가 운동장 반대편 쪽에 관리관계실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중복도형 교사에서 관리관계실의 위치에 일관성이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sup>5)</sup> 학교의 중심 부분에 운동장을 바라보며, 즉 교사동의 전면부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관리관계실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나 위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다는 또는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64년도 서울시의 표준도에는 흥미로운 상세가 등장한다. 단위교실에서 흑판 쪽 개구부에 설치된 가변형 루버가 그것이다.<sup>6)</sup> 단위교실에서 흑판 쪽의 외벽에는 직접 일사에 의해 흑판에 현휘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켜졌었다.

전술했듯이 64년 서울시 표준도의 입면구성은 기둥과 보 등의 구조체 부분과 창 하부벽을 제외한 모든 외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채광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현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흑판 쪽 외벽부분에 가변형 루버장치를 계획하고 있다. 가변형 루버장치는 버티컬 블라인드(vertical blind) 형식으로 구성되어 채광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현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었다.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수납공간을 최대

한 확보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sup>7)</sup> 그림3에서 보듯이 64년 표준도에서는 단위교실의 운동장측과 복도측 벽, 그리고 복도의 외벽부분에 모두 수납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표준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납공간을 계획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화된 수납공간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였다는 점도 설계자의 세심한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 3.3 소결

64년 서울시 표준도에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표준화교사들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는 조금 구별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표준화교사에 금기시되었던 중복도형 평면이 반영되어 있으며 입면 구성방식에서도 이른바 '일체의 의상이 탈각된' 무미건조한 입면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의장상의 고려도 보인다. 가변형 루버장치나 건축화된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도 나타난다. 보고서에서는 이 표준도를 '보다 많은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학교건축의 바람직한 형태는 거의 퇴색되어 학교건축의 이론적 근거는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1, p1] 상황에서 '현실적 문제를 토대로 하여 현실과 요양을 절충한 것'[1, p1]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농촌지역 학교건축의 상황과 교실확보가 최대관건이었던 열악한 교육시설 여건을 고려한다면, 학교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건축가로서의 의지가 반영된 당시 상황에서는 다소 이상적인 계획안이었다고 생각된다.

## 4. 1975년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 4.1 구성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1972년부터 연차계획으로 추진하여온 국민학교 대도시형 교사 표준설계(1972), 중학교 대도시형 교사 표준설계(1973), 고등학교 특별교실 표준설계(1974), 공업학교 비품 표준설계(1975)를 일반교사 표준설계도, 부속시설 설계도, 공업학교 비품 표준설계도 등 3편으로 묶어 학교시설 표준설계도집으로 발간한 것이다.<sup>8)</sup>

5) 보고서 상에도 관리관계실의 위치에 관해서는 '학교관리에 편리한 위치에 배치되되'[1, p5]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언급만이 되어 있을 뿐이다.

6) 그림 3의 2층 교실 부분 참조. 그림3에서 인용한 표준 단면 상세도 외에도 가변형 루버장치의 상세도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

7) '보통교실에 필요한 closet는 그 면적이 교실의 면적을 침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신장은 벽속에 미리 설계하도록 한다.)', '(행정관리실의:인용자)기본적 closet는 그것이 행정관리실의 면적에 침식이 되지 않도록 미리 설계하여야 한다.' [1, p2]

8) 참고문헌 1, 발간사 중에서 (page 없음), 각 편의 표지 제목은 학교시설 표준설계도로 통일되어 있고 각각 1집 교사체

전반부에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64년 표준도와 달리 1, 2, 3편 모두 도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본편에 해당하는 1집 교사·체육관 편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사동과 체육관 도면들이 수록되어 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각각 교사동 5가지 유형, 체육관 1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평, 입, 단면도와 구조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유형별로 5매에서 9매 정도의 도면들이 있어 국민학교 39매, 중학교 46매 분량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들 중에는 창호 보호, 상세 보호 등의 인출부호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관련도면이 설계도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보면 설계도집 발간을 목적으로 별도로 제작되었던 64년 표준도와는 달리 75년 표준도는 기존에 작성된 표준도면들 중에서 주요 도면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2집 부대시설편은 숙식실, 변소<sup>9)</sup>, 창고, 정문, 담장, 맨홀 등의 토목시설과 음수대, 물탱크, 우물 등의 급수시설 관련 도면들을 수록하고 있다. 3집 비품-1편에는 국민학교용 책, 결상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 도면의 표제란에 ‘공업학교 비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공업학교에서 사용되는 실험실습용 가구 관련 도면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4.2 특성

### 4.2.1 평면구성

국민학교 교사는 P-60, 65, 68, 74, 75 등 총 5종류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sup>10)</sup> 5종류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모두 일자형 편복도 형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유형을 나눈다면 P-60형과 P-65형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P-60형은 양단에 계단실이 있고 그 사이에 6개의 교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P-65형은 P-60형에서 계단실 양측에 교실 또는 특별교실이 한 개씩 더 배치되고 중앙에 계단실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굳이 명칭을 부여한다면 2계단실형과 3계단실형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평면구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육관편, 2집 부대시설편, 3집 비품-1편 등의 부제가 붙어 있다.

9) 부대시설 대부분이 변소 관련 도면이다. 종류도 수거식, 신설형, 개조형, 개량식 등으로 여러 가지 형식이 시도되고 있었으나 수세식 화장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M-60, 70, 73, 74, 75의 5종류와 체육관 G-7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P와 M은 각각 primary school과 middle school의 첫글자를 의미하며 뒤의 숫자는 해당 유형이 만들어진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표준설계도집에는 위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표3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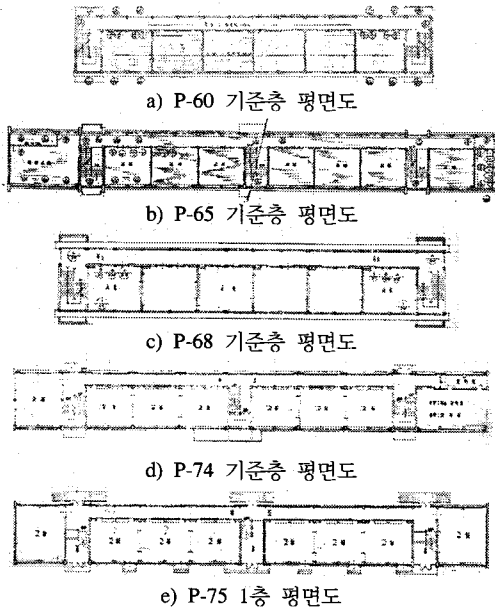
【표 3】 1975년 서울시 표준도의 유형 및 주요특성

구분	P-60	P-65	P-68	P-74	P-75
계단실	2개	3개	2개	3개	3개
단위교실 모듈	9m×7.3m	9m×7.5m	9m×7.3m	9m×7.5m	9m×7.5m
복도폭	2.3m	2.5m	2.3m	2.5m	2.5m
층수	4층	4층	지하1층/4층	지하1층/4층	4층
특별교실	없음	각층 단부	없음	각층 단부	없음
관리실	없음	없음	없음	1층	없음
화장실	없음	각층 단부	없음	없음	없음
연결복도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주요 특성	-	화장실이 각층에 계획	P-60과 동일하나 지하교실이 계획됨	관리실, 특별교실이 구체적으로 계획	1층 교실 외부출입구 계획

P-68형부터 지하층이 설치되어 지하교실이 계획되었다. 이는 당시 건축법의 지하층 설치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하교실은 P-74형에서 한 번 더 계획되었다 P-75형부터는 다시 사라졌다.<sup>11)</sup> 화장실은 P-65형을 제외하면 모든 교사동에 계획되어 있지 않다. P-65형에 적용된 화장실은 재래식이지만 적층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남녀공용이다. 국민학교 화장실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75년 서울시 표준설계도 2편 부대시설편에 ‘다층 겸비식’으로 명명된 남녀 구분형 화장실 평면이 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늦어도 70년대 중반부터는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각 유형에서 평면상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P-75형의 경우 1층 교실에서 외부로 직접 출입하는 출입구를 계획하고 있다. 각 단위교실에서 외부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방식은 국내 학교건축에서 자주 발견할 수 없었던 계획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P-75형에는 이외에도 교실사이 벽을 이용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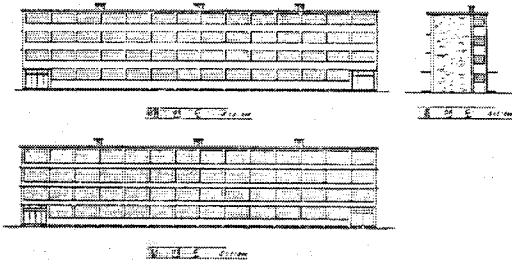
11) 1969년 말 문교부에서 작성한 「1971년도 의무교육 시설사업 계획지침」(1969년 11월 7일, 교재 1047-937)을 보면 지하교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건축법 제 2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6조 규정에 따라 인구 20만 도시 교실 건축에도 지하교실을 설치하여 건축법에 적용한 학교건축을 하도록 한다. ‘지하교실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실 건축을 하되 완전 밀폐된 지하교실을 지양하고 천장 부분에 약간의 창문을 두고 외부에 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채광과 환기 설비를 기하여 평시 아동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p263]



[그림 1975년 서울시 표준도, 출처[2]

#### 4.2.2 입면구성

평면유형에서 P-60과 P-65형이 기본이 되었던 것처럼 입면구성에서도 두 유형은 기본 유형이 되고 있다. 편의상 명칭을 부여하여 구분한다면 계단실 비구분형과 계단실 구분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및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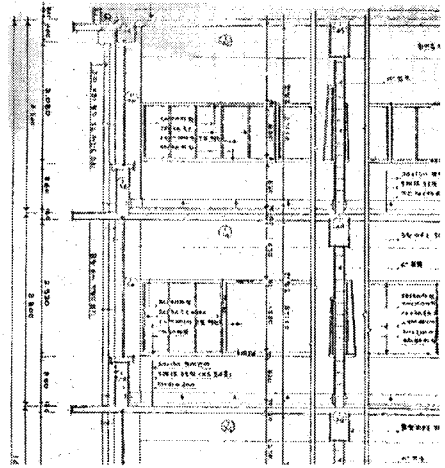
[그림 5] P-60형 교사 입면도, 출처[2]



[그림 6] P-65형 교사 입면도, 출처[2]

우선 P-60형이 기본이 되는 계단실 비구분형은 입면에서 계단실부분이 구분되어 보이지 않고 옥탑이 없다. 따라서 파라벨 높이도 최소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4년 서울시 표준도에서와 같이 기둥과 보 같은 구조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창호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P-60형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역보 형식을 채택하면서도 지 개구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그림5, 7 참조) 이와 함께 역보를 사용하여 외벽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계단실 비구분형인 P-68형에서는 역보 구조가 사라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무리한 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이며 P-65형부터 외벽을 이중벽으로 쌓기 시작했는데 역보가 외벽의 역할을 할 경우 이중벽을 쌓게 되면 외벽 두께가 지나치게 두꺼워진다는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 P-60형의 단면상세도 일부, 출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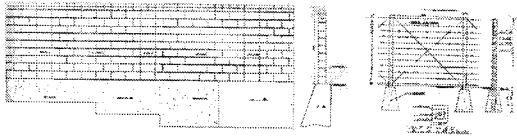
P-65형이 기본이 되는 계단실 구분형은 계단실 부분이 외관에서 구분되어 보이며, 옥탑이 있기 때문에 파라벨의 높이도 높아졌다. 계단실 구분형의 또 다른 특성은 창의 면적이 작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P-65형부터 벽이 이중벽 구조로 바뀌면서 실내의 단열문제를 채광문제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창의 면적도 작아졌고 루버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아져 전체적인 입면의 인상이 P-60형과 차이가 있다.

#### 4.2.3 부대시설

64년 표준도에서는 강당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1975년 표준도에서는 강당 대신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다. 체육관은 농구장 1면이 수용될 정도의 크기(12) 무대, 준비실 등이 부속되어 있어 강당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2편 부대시설편에 수록되어 있는 도면들은 대부분 화장실 관련 도면이고 특이한 부분은 없지만 담장의 표준도가 인상적이다.(그림8 참조) 1.8미터 높이의 블록담장과 철조망이 표준도로 제시되어 있다. 당시에

12) 체육관의 규격은 18m × 40m 이며, 최고 천정높이는 9m 이다.

도 학교의 지역개방이나 개방형 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비교적 고가의 기자재들에 대한 도난사고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위와 같은 담장 형식이 표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블록 담장 및 철조망 상세도, 출처[3]

### 4.3 소결

1975년 서울시 표준도는 1964년 서울시 표준도에 비해 후대에 만들어졌으나 평면이나 입면구성 방식이 더욱 단순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 배치도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교지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1964년 표준도에 비해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 만들어진 표준도집이지만 진전된 계획기법은 없어 보인다. 특히 1970년대는 1960년대의 의무교육시설확충 사업으로 부족교실을 확보하고 특별교실 등의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인데도 이러한 정체는 다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전술했듯이 1964년 서울시 표준도가 다소 이상안에 가까운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 5. 결론

이상에서 1964년과 1975년 서울시에서 작성했던 국민학교 건축 표준설계도의 특성을 표준도의 구성과 평면 및 입면 구성방식, 그리고 부대시설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표준도 모두 장방형 교실에 편복도형의 블록플랜, 일체의 의장을 배제한 철저히 기능적인 외관 등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립되었던 국내 학교건축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앞서 제작되었던 1964년 표준도가 상대적으로 이상안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그 보다 후에 정리된 1975년 표준도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두 표준도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계획특성들과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들도 파악할 수 있었다. 64년 표준도의 중복도형 평면, 75년 표준도의 지하교실과 교사동내에 배치된 적층형 재래식 화장실 등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계획방식들이 시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창호나 외벽의 구성 방식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들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지의 조건이나 아동의 연령별 특성의 고려 같은, 1990년대 이후 시대에 가능했던 학교건축에서의 진전된 논의들이 적용될 여지는 없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도 하였다. 이는 두 표준도가 가지는 한계로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각을 달리한다면, 교실부족이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국내 학교건축의 열악했던 계획여건과 이 때문에 표준설계도의 전형성이 고착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국내학교 건축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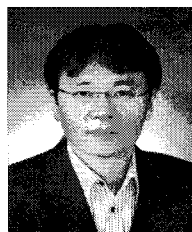
본 연구는 그동안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국내 학교건축에서의 표준 설계도 관련 자료들을 발굴하고 이를 정리하여 국내 공교육시설사를 세밀하게 정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축적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표준 설계도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사례들에서 이러한 표준설계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돌린다.

## 참고문헌

- [1] 서울시 교육위원회 표준건축 시설연구 위원회,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표준건축 시설연구 보고서", 1964
- [2] 서울시 교육위원회,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1집 교사체육관 편, 1975
- [3] 서울시 교육위원회,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2집 부대시설 편, 1975
- [4] 장기옥, 조규항 편, "문교 훈령·예규·질의 회답 (재무편)", 교학사, 1971
- [5] 전라남도 교육연구소 편, "전남교육-전진하는 전남교육의 전모", 전남교육위원회, 1966
- [6]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1962년 6월 25일자
- [7] 충청북도 교육연구소 편, "발전하는 충북교육",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1967

이 정 우(Jung-Woo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2.3~ :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관심분야>  
학교건축, 도시건축